

자유율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유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있으면 자유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식이 그 부모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인 고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것이니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지 진실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게 나와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전체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모든 전체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종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종교라야 하나님의 종교이지, 인간의 종교이면 그게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피로 몸이 만들어진 고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지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지 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의 지면에 있었던 고로, 하나님이었던 고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된

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이 길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 백년 나와 봐야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운데서 살아야 그래야 인간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야 범죄도 할 수 없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고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의 인간의 말이 아니고 완성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완성자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자요, 완성자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자가 완성자인 고로 완성자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다 완성자의 소유가 되는 고로 온 천하만국이 바로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점령된 후 지금까지 천당이 존재해본 적이 없었다

천당은 구세주의 소유입니다. 구세주가 만드는 것이고, 구세주가 천당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천당을 이룰 수가 없고, 천당이 지금까지 존재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옛날 육천 년 전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점령되기 전에는 천당이 있었지만 그 후부터는 천당이 존재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부처를 믿으면 극락세계 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없는 천당을 어떻게 잡니까?

마지막 때까지 믿음이 없었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누가복음 18장8절에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써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믿



구세주 조희성님

음이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는 데 천당 갔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당에 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믿음이 마지막 때까지 없는데, 예수도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당 못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천당이 있어야 천당 가지, 천당이 없는데 어떻게 천당을 잡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야서 43장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11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였던 고로 구원하는 자가 구세주입니까? 구원을 뜻하는 자가 구세주입니까? 구원하는 자가 구세주이죠?

하나님이 구세주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다

이사야서 60장3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였던 고로 구세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서 당신 자식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졌다는 말씀이 없지않고, 격암유록에는 하나님이 마귀한테 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마귀에게 진 고로 그런고로 '귀신(鬼神)'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귀(神鬼)'라고 불러야 이제 마귀한테 왜 귀신이라고 부르냐하면 바로 마귀 귀(鬼)자, 마귀가 이긴 고로 승리자가 앞에 있게 되어 있는 고로 귀신이라고 한다는 말씀이 써어 있는가하면 이제 그대로, '부부지간을 '외내'라고 불러야 할 텐데, '내외지간(内外之間)'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인(優人)이 되는 마귀가 승리한 고로 승리자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고로 '내외'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성경에 없는 말씀이 격암유록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격암유록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직접 함께해서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20세기 후반에 인류 역사 6천년이 된 다음에 오신다

성경에는 구세주가 언제 온다는 것이 안 써어 있지만은 격암유록 '생초지락'에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온다는 말씀이 써어 있죠? 정도령이 구세주라고 격암유록에 써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정도령인 고로 정도령이 20세기 후반에 온다고 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6천 년간 일을 하신다는 말씀은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시는데, 6천 년간 일을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예덴동산, 바로 하늘나라 천당을 건설할 구세주를 6천 년 동안 키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6천년 만에 구세주가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써어 있어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백 번, 천 번 읽어봐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옛세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되는 날 천다고 말씀을 하였고 또한 그 짝이 되는 말씀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라고 짝을 맞춰서 성경을 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천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베드로후서 3장8절에 있는 말씀과 옛세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과 짝을 맞추면 6천 년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7천 년대 가서야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와서 천당을 건설하기 전에 구원 얻을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천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당에서 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는 천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당의 구비조건은 천당에서 살 하나님이 있어야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먹는 대로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 만드는 방법을 이 사람이 지극히 성경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마음먹는 대로 된다는 말씀이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첨단과학자 미국의 록펠러 대학 교수들이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2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깡깡이 마음을 먹으면 깡깡이 피로 변해가지고 얼굴이 깡깡이 얼굴로 변한다. 그러므로 흥측한 마음을 먹으면 바로 흥측한 피로 변해가지고 흥측한 얼굴로 변하는 고로 인상이 흥측하면 바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얼굴 모양이 마음먹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1년 8월 2일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 박명하

조희성님의 발자취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연단생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로 살다

'나'라는 것을 짓기에는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계속 해 왔다. 사회생활 할 때는 순전히 자신과의 내밀한 투쟁이었지만, 밀실 안에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무서운 중노동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육간의 처절한 싸움을 하였던 것이다.

나라는 인간 생각 판단이 주장하는 주체의식을 죽이기 위해 여러 모로 투쟁을 해온 가운데 벌어진 하나의 이야기다.

중노동을 하면서도 고기 반찬을 안 먹다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는데 밥 때가 되면 늘 고기를 반찬으로 해 주셨다. 해외주님은 밀실식구들이 심한 중노동을 한다 하시며 자주 닭고기를 사 오셨다. 다른 사람들은 몹시도 식욕을 느껴 고기로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힘들게 일을 해서 배도 너무너무 고프고 특히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고기가 밥상에 올라왔으니 얼마나 식욕이 당기겠는가! 이 사람도 그 고기가 너무도

먹고 싶었으나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서 마귀의 기를 살려 줄 수 없다.' 고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김치만 먹었다. 다른 사람이 고기 먹으라고 자꾸 권하니 이 사람은 아예 고기를 먹을 줄 모른다고 말하고는 고기를 일절 먹지 않았다. 냄새와 먹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그걸 못 먹는다고 하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서 먹은 것이었다. 말이 그렇지 그런 중노동을 하고 나면 힘이 달려서 몸이 허한데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결의는 나를 미워해서 죽이는 심정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1차로 이긴자가 되었다는 선포를 들은 후에 이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 '조사장님이 이제 고기를 잡수십니까?' 하고 궁금해 하며 물어보는 것이었다.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하며 고기를 잘 먹으니 다들 놀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반대로 하는 투쟁을 아무도 모르게 집요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밥을 먹을 때도 배가 고파서 밥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식사하던 것을 중단해버렸다. 또 잠을 자는

조희성님께서는 공동묘지에서 공포를 이기는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다 / 그림 박준구 장로

시간이 되어서 졸리면 도리어 잠을 자지 않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잠을 깬 후에 잠이 안 올 때 잠을 잤다.

또 옛날부터 이 사람은 생일 같은 것은 지내보지 않았다. 생일이 되면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이시는 고로 일

부러 생일이 되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라는 것이 어렵듯이 죄악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면 저절로 혐오스러워지고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모르는 반대 생활을 어

려서부터 평생토록 해왔지만 밀실 안에서 그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실천했던 것이다.

두려운 마음과 겁을 없애는 시험

또 이런 일도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과 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없애는 과정의 일화다.

해외주님께서는 약한 마음과 무서움을 없애는 연단을 시키셨다. 처음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칠곡같이 캄캄한 날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라고 하셨다. 해외 이긴자의 말씀은 곧, 지상명령이므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곤 하였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공동묘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별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런데 해외주님께서는 미리 공동묘지 근처 숲속에 사람을 보내 놓고 밤중에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모래를 던지게 하여 겁을 주려 하였다.

어느 한 날 밤중에 묘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래가 확확 날라 왔다. 가만히 오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리고 손살같이 덮쳤

다. 뭔가 잡혔고, 후려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아닌 밀실 식구였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배짱과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스스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일생을 통해 수백 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 단련된 터라 두려움이 없었다.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장사(葬事)자낸 지 3일 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뜯어 시신을 들어내고 그 관 안에서 잠을 자고 오라고 하셨다. 해외주님께서는 시키는 대로 밤중에 혼자 삼을 가지고 가서 무덤을 파고 관을 뜯어보니 실제로 목을 매어 자살한 시신이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 시신은 눈을 크게 뜨고 허를 길게 뽑아 늘어뜨리고 있는,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이 시신을 들어내고 그 관에 누워서 잠을 청하여 단잠을 꿀꺽 잤다. 한참을 자다가 해외주님께서 사람을 시켜 깨워주시는 고로 일어나 원상대로 무덤을 정리해 놓고 왔다.

그렇게 무난히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는 무서움에 대한 연단을 다시는 안 시켰다.*